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협력목표 진전위해 韓정부 전폭적 지원할 것”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방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과 대화물꼬 틀 방도 협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8일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과제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에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가졌던 여러 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움직인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 내 관계 변화, 한반도 비핵화, 한국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외교차관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이날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스웨덴 등 3국에 ‘K-스타트업센터’ 개소

중기부, 해외안착·성장 집중지원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저스트코타워에서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에 있는 ‘K-스타트업센터(KSC)’ 개소식을 갖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안착과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KSC 개소식은 행사장 현장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에서 액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 유관기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물리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K-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의지를 다졌다.

KSC는 현지 네트워크와 자금, 입주 공간 등을 모두 지원해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돕고 국가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지난해 인도 뉴델리, 미국 시애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KSC를 연대 이어 올해 들어선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싱가포르에도 열거됐다.

한편, 올해 K-스타트업 센터 6개국에 진출할 기업을 모집한 결과 92개사 모집에 총 279개사가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도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코로나 책임공방, 美·中 분쟁확산 우려

# 中企 51% “수출 등 악영향” 걱정

중기중앙회, 수출기업 300곳 조사 분쟁확산 예상기간 ‘1년 이내’ 61% 예상되는 피해 71% ‘수출감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떠넘기기가 무역분쟁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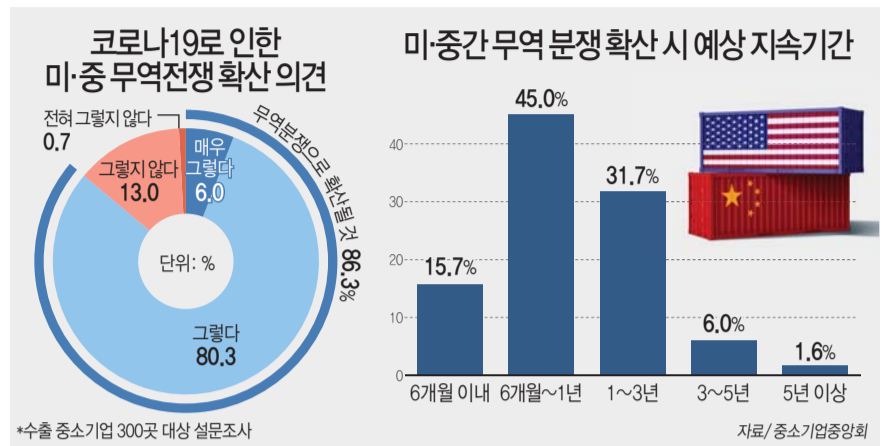
절반 정도는 이들간 무역분쟁이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4곳은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3%가 코로나19 관련 책임공방이 무역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 컸다.

‘무역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13.7%에 그쳤다.

미·중간 무역분쟁 확산시 예상되는 기간으로는 ‘6개월~1년’이란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1~3년’은 31.7%, ‘6개월 이내’는 15.7%였다. 이 가운데 중국 수출기업들은 예상 영향 기간을 ‘1~3년’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수출 중소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자료/중기중앙회

분쟁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3%의 기업이 ‘부정적 일 것’이라고 밝혔다.

‘긍정적 일 것’이란 답변은 1.7%에 그쳤다. 나머지 47%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되는 피해는 ‘전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71.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무역분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다. 또 ‘미·중 환율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38.3%), ‘중국 시장 위축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34.4%) 등도 예상되는 주요 피해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42%가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대외 리스크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거래처 및 수출시장 다변화(32.7%)’,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

자 확대(17.3%)’, ‘환변동 보험 가입 등 환리스크 관리 강화(17.0%)’, ‘생산기지 이전(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미·중 분쟁 위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41.7%)’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37.0%)’, ‘환율 변동 대응 등 외환 시장 안정화(32.3%)’ 등도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간 코로나19 책임공방과 홍콩 보안법 통과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확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정부는 시나리오별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靑 노영민, 무주택자 된다... “이달 반포 아파트 처분”

청주 아파트 처분 이어 추가매각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으로 ‘뚝뚝한 한 채’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원칙에 노 실장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론 내에서도 노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같은 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에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청주 소재 아파트는 매각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은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데 대해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적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최영훈 기자

## 농식품부 ‘농산물기획전’ 매출 43억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으랏차차 우리농산물’ 온라인기획전이 6월 한 달간 4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이커머스 7개사를 통해 6월부터 3개월

간 운영하며, 7월에는 육선과 G마켓을 통해 300여개 농가의 우수상품을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오미자, 더덕 등의 지역 특산물부터 수박, 참외 등 계절과일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 쿠팡과 11번가를 통해 진행

한 첫 번째 기획전은 43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7월 옥션, G마켓에 이어 8월에는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를 통해 한 달간 전용기획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농가의 이커머스 판매사 입점을 지원하고, aT와 이커머스는 할인쿠폰 발행, 판매수수료 할인,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돕는다.

/한용수 기자 hys@